

▲ 김용화 : 병아리 가격은 괜찮지만 아직도 부채에 시달리는 종계인들이 많다고 인사에서도 밝혀주셨는데 실제로 종계·부화 업계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 이언종 : 제가 전국의 현황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종발협회원이나 주변을 살펴보면 2년전에 비해 종계장은 약

40%가 정리 되었고, 남아있다 해도 종계사육율이 많게는 30~40%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여 집니다.

대신 계열주체나 대형 자금력이 양호한 몇몇 종계장들은 규모가 커진 곳도 있으나 일반 종계업자들은 숫자나 규모로 보아서 대폭 위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용화 : 관련 통계를 보면 종계의 경우 1997년은 1996년에 비해 약 6%가 감소하였고, 1998년은 무려 23%가 감소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소가 거의 일반 종계장의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변화를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이언종 회장

△ 이언종 : 육용종계 입식량으로 본다면 종계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소했다고 보는 것은 대략 전통적으로 종계·부화를 하면서 생활을 했던 주위의 동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열주체나 규모가 큰 종계장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병아리 가격을 시

장 흐름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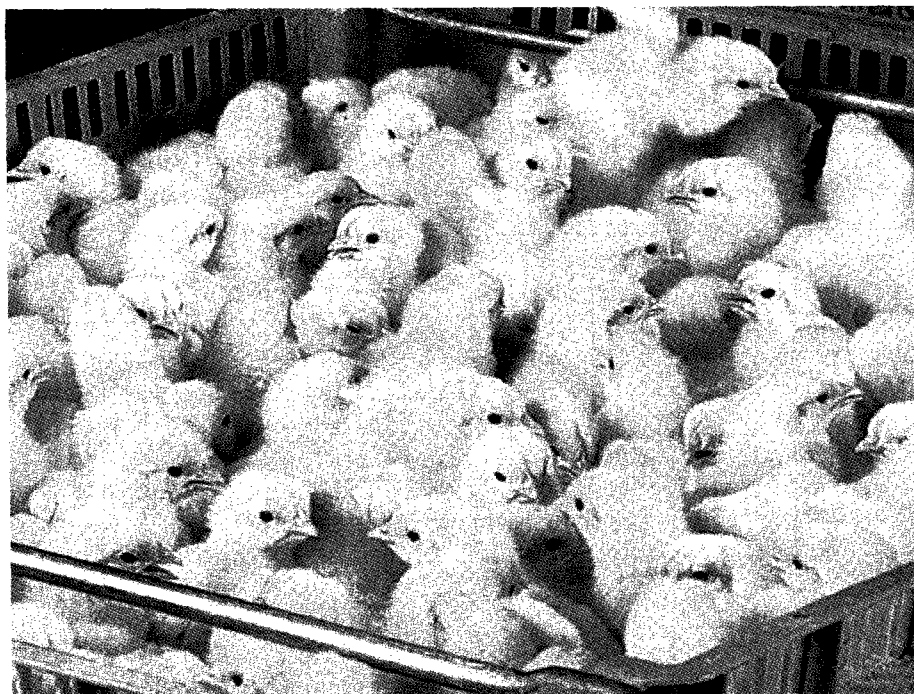
좀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화장의 병아리 판매가 약 30% 정도는 일반 육계농가에게 하고, 나머지 70%는 납품을 하거나 유통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계농가들의 평은 약 80% 이상이 계약사육에 의해 육계가 공급된다고 보는 것과 같이 병아리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용화 : 선진 외국의 예를 보아도 종계업은 어느 수준까지 독립된 업종으로 존속을 하게 되는데 계약사육 비중이 높아졌다 하더라

도 계열 주체가 전량 병아리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도 일반 전업 종계장의 존속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보여줍니다. 같은 종계인 간의 협력체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지요?



△ 이언종 : 금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경기가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종계·부화인들은 일단 병아리 값이 안정되면 단합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가 어떻든 경기는 변화되는 것이고 가격이 괜찮으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불황이 오는 것이 되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야말로 살아남은 종계·부화인들이 금년 하반기나 내년의 경기에 대비하여 지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칫 입식 과열이 재현되어 생각보다 불황이 일찍 찾아오게 방치한다면 회복불능의 동료들이 또 대거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용화 : 병아리값이 강세를 보이자 종계

환우가 많고, 산란율이 저조한 계군이나, 백세미 생산량까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국제경쟁력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다보니 수입 닭고기가 국내 소비량의 약 4%가 넘게 수입이 되는게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언종 : 바로 그래서 공존공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닭이 아무리 산란율이 나빠도 사료는 다 먹는 것 아닙니까.

이는 생산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산비가 높아지면 닭값이 인상되어 환율이 높다 해도 상대적으로 싼 수입 닭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가 끌어들이고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백세미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종계인의 결의로 관계요로에 부당함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했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계·부화업계가 걸으로는 병아리 가격이 안정되어 평온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어려움으로 닥칠 난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계·부화인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김용화 : 종계부화업계의 위상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육계없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종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언중 : 어려움을 견디며 같이 생존해

나가야 하는 종계·부화인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지난해 백세미 생산근절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협찬금을 보내주신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회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계·부화인들이 단합하여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기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종계·부화인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합하여 병아리가 생산되는 동안 고통을 최소화하고 투자한 재산이 보존되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지키고자 노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묘년 한해동안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김용화 : 감사합니다. 양계

##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 주간 양계속보

—주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